

# 온두레 · 아파트 공동체 사업 출발

### 전주시, 4차 년도 75곳과 '온두레공동체' 협약식... 46개 공동체, 1단계 디딤단계 공동체 선정

전주시가 이웃 간 정이 사라지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4차년도 온두레공동체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9일 시청 강당에서 '2018년도 온두레공동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5개의 온두레·아파트 공동체 대표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체를 복원해 활성화시키고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았다.

올해는 5명 이상의 전주시민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수익창출을 피하는 창업공동체 37개와 20명 이상의 마을 주민이 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 9개 등 46개 공동체가 온두레공동체 1단계인 디딤단계 공동체로 선정됐다.

또 과거 디딤단계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경쟁력 있는 13개 공동체가 2단계인 이음단계로 선정됐으며, 디딤·이음단계에 참여했던 공동체 중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5개 공동체는 마지막 3단계인 희망단계에 참여하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려심 부족과 이웃 간의 관심 단절, 층간 소음 등 아파트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공동체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육성사업이 온두레공동



전주시는 9일 시청 강당에서 '2018년도 온두레공동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5개의 온두레·아파트 공동체 대표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체 사업에 포함돼 총 11개 아파트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이 펼쳐지게 됐다.

시는 선정된 온두레공동체의 활동을 돕기 위해 최대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단계 공동체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 희망단계를 마친 이후에도 공동체 사후관리와 1:1 및

출형 컨설팅 지원, 현장 방문 지원 등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동화나래연구소 공동체 대표는 "동화나래연구소가 2015년 온두레 사업을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년째를 마치고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는 단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됐다"며 "다른 공동체들도 이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도식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올해 온두레공동체 시행 4년차를 맞아 희망단계까지 모두 마친 공동체가 생긴 만큼 이번 공동체 협약식에 대한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두레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주고 지원해 전주시를 빛낼 수 있는 희망단계 공동체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자원봉사 활성화 위해 동참하자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 가져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9일 41개 자원봉사 단체와 20개 수요처 관계자와 실무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전주시지역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수요처 관리자들은 이날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주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김

청일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궁금했던 선거관련 사항과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 및 금지 행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참석자들에게 △자원봉사 역량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중추적 역할 △자원봉사자 인정과 보상 4대 전략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올해 추진될 △자원봉사 단체 협력 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자원봉사 인센티브 등 총 29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채규남 기자

## 자활사업 참여주민 인문 프로그램 진행

### 덕진지역자활센터, '2018년 나눔과 꿈' 사회복지 공모 선정

전주시 덕진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문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덕진지역자활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격주로 인문학을 쉽게 접하지 못한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활력소를 되찾아 주기 위해 음악과 영화, 시를 활용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문 프로그램은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손잡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2018년 나눔과 꿈' 사회복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덕진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영화, 음악, 시 등 인문학은 사회적 관계 속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힘이 있다"며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이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뜻있는 기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전주대, 교수 성추행 의혹 사과

전주대학교가 해당 학교의 교수가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지난 9일 전주대는 "문화융합대학 A교수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피해자와 재학생, 학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며 "관련자의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A교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결과에 따라 학칙에 따라 직위해제 등의 인사 조치도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 A교수는 수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다.

이후인 총장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사전에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 '지방선거 조폭 개입' 100일 집중단속

###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도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조직폭력배의 선거 개입 차단과 서민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00일간 조직폭력배와 상습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되거나 선거관련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안정적인 선거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세상인 및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 협박, 갈취 등 생활 주변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갈취 및 주취 폭력배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 강력형사와 광역 수사대 등 10개의 전담수사팀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신고·제보자의 신분보장과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조직폭력배 및 생활주변 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사태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조직폭력 등 생활주변폭력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조직폭력배 174명을 검거해 그 중 26명을 구속하고 생활주변 폭력배 529명을 검거하여 그중 30명을 구속한바 있다. /이상민 기자

### 종교시설만 골라 탄 50대 구속

침입하기 용이한 종교시설만 골라 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9일 야간주거침입정도 등의 혐의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8시께 익산시의 한 성당 예배당에 침입해 현금용 돼지저금통 24개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천주교 성당과 원불교 교당 등을 돌며 모두 5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과 27범으로 드러난 김씨는 훔친 돈을 성인계암방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 전주시 '프로 엄마되기 사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한 '프로 엄마되기 사업'을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업은 △모유수유 교실 △신생아 돌보기 교실 △산후조리 교실 △영유아 마사지 교실 △임신 체험복 대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약 6.5kg 무게의 임신 체험복을 착용해보며 체중 증가 등 임신 중 신체 변화를 간

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임신 체험복 대여 프로그램이 신설·운영된다.

또 보건소는 기존 출산 준비 교실에 신생아 돌보기 교실을 추가해 신생아 신체상태와 성장과정, 신생아 목욕시키는 방법, 기저귀 채우는 방법 등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모유수유 교실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모유수유의 장점과 필요성, 구체적인 모유수유의 자세와 유방관리법, 직장인의 모유수유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보건소 전화(063-281-6267~8)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